

宗教 定義의 批判 (十)

哲學博士 金永義

그러나 宗教는 價値에 對한 信仰이나 神과 사람 사이에 잇는 이 쓰거운 神秘的 情緒 쏨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現實의 世相과 生活을 自己가 밋는 價値로 現實化하게 自己가 가지는 그 神秘的 經驗을 普遍化 하려고 努力하여야 한다. 여기서 宗教라는 것이 現實을 쪼난 將來와 超自然을 꿈꾸는 幻像이 아니라 이 現實生活을 全部 通하여서의 活力이어야 한다. 勿論 價値 不滅을 宗教는 밋는다. 그러나 그 宗教不滅을 미더 慈悲, 博愛, 人情을 抽象的으로 밋는 것이 아니라, 그것을 空中에 쪼 잇는 不滅할 것으로 信仰하는 것이 아니라, 이 現實生活을 慈悲化, 情愛化, 人情化 하려고 努力하는 것이다. 짜라서 宗教는 깨끗하게 옷 입고 잇는 集會室에서 쏨만이 아니라 소리 요란히 나는 工場, 햇빛 아니드는 炭鑛슬림과 抑鬱이 찬 世相 가운데서 自己가 밋는 그 價値를 實現하기 爲하여 努力하여야 한다. 짜라서 사람의 삶이 잇는 췌까지 사람이 價値에 對한 理想을 두는 췌까지 宗教는 사람에게서 消滅될 것이 아니다. 卽 經濟制度, 社會生活, 倫理的 判斷은 늘어가는 人智의 變遷되는 環境에 짜라 革新이 된다 하드라도, 한 모퉁이에 서서 남들은 췌이 다 피고 입이 돛는 췌 호올로 겨울의 죽은 狀態로 잇는 것 가틈이 아니라, 짜스한 바람결처럼 이리로 저리로 불면서 이 산꼴 저 산꼴로 다니면서 나무에는 췌이 피고 가지에 입이 돛고 췌에는 果實한 풀이 다시 돛게 하는 것이다. 만흔 사람은 力說怒號하는 것이 遊食階級을 업시 하자, 農民을 살리자, 푸로레타리아 階級의 生活을 爲하여 力□하자 한다. 그들은 우리의 教育制度, 社交制度, 娛樂生活을 革新하자 主張한다. 卽 그들이 가지는 思想의 價値를 現實化 하자 함이겟다. 그러면 그들의 主張은 宗教가 불으깃는 卽 사람의 全 삶을 價値 實現化 하자는 곳에 包括되지 안헛나?

더욱히 宗教가 完滿한 發展을 가지려면 自我가 神과 調和됨에서 가지는

그 情緒 □□은 이와 난호는 것이다. 비록 悲哀와 苦痛은 호올로 沈默으로 當하여야도 自己의 苦悶과 즐거움을 호올로 單獨이 經驗하지 못하듯, 宗教의 神秘經驗을 經驗하는 者로서는 그 經驗을 난호려고 努力하는 바이다. 사랑을 못해 본 사람에게 사랑의 □□가 理解되지 못하듯, 萬若 사람이 달은 이를 사랑해야 못보면 神의 사랑 亦是 理解되지 못한다. 주는 것의 苦悶을 물으는 者로서 엇지 남이 주는 것을 바들 수 잇스랴? 여기에서 종교를 밋는 이들이 自己의 故國조차 버리고 苦勞를 사면서, 地位를 버리면서, 故國을 쫓다 시 못가면서 自己가 가진 그 사랑을 自己가 바들 그 사랑을 나타내여 달은 이에게 寄치려는 行動이 나는 것이다. 우리가 보는 그 복치고 다니는 救世軍들, 알어듯지 못하게나마 말하려 애쓰는 宣教師의 무리, 큰 名譽 높은 地位, 文明의 便利를 썬나 썬는 해빛이 나리는 病과 □□에 呻吟하는 阿弗利加에 □□□하면서 苦悶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.

다만 □□한 神, 거룩한 最高實在에서 잇는 그 情緒를 남에게 난호겿다고 願할 뿐임이다. 그러하면 宗教는 무엇이라 定義하면 이 모든 現象을 包括하겠는가? 人的 生活이 가장 높은 價値들을 信仰하며, 그 價値의 最高實在인 神과 調和되어 그이의 扶助와 □□를 바드면서 限업는 慰安과 獎勵의 情緒를 바드며, 우리의 모든 形式과 表現으로 그 神을 禮拜하며, 現實生活을 價値化하고 그 神秘的 經驗에서 나는 그 情緒를 달은 이들과 난호려는 生活이 卽 宗教이다. 그러면 『宗教는 最高實在를 信仰하며 그 價値의 主體者인 實在와 調和 썬는 □□되는 情緒로 實在的 神을 禮拜하여 그이의 도움으로 現實生活을 價値化 하는 삶 의 힘이라.』고 主張함이 가장 合理的 定義일 것 갖다. (끝)